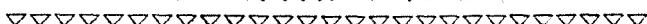




鄉土學校圖書館設置를促求함



이 글은 全南 麗川南中學校 校內雄辯大會에서 入選한 雄辯原稿입니다. ▶
原始的인 우리나라의 農耕方法에서 復興發展은 무엇보다도 먼저 “알
야야만 한다”라는 論者の當然한 主張이, 鄉土學校圖書館 및 公共圖書
館設置에 刺戟劑가 될줄 믿어 掲載하였습니다. ▶▶▶

農村에 계시는 우리 父母님들은 험벗고
徒步하고 밭낮 삶에 시달려왔건만 革命政府
의 果敢한 施策으로 말미암아 農家에도 光
明이 비쳤고 기쁨과 새希冀을 가져오게 하
였으며 憂愁과 勇氣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革命課業이 完
全히 成就된것이 아니요 우리들의 生活面
에는 非科學의 인것 非能率의 인것이 많음
니다. 우리들은 過去에 너무나도 受動的
이었고 지나치게 依賴心이 많았으며 矛盾
되는 保守的인 生活을 無批判하게 하여왔
다는 事實을 否認할 道理가 없습니다.

再建意慾에 불타는 여러분! 지난날의
弊習과 慵怠心을 버려야 할때는 왔습니다.
바야흐로 貧困을 打破하고 無知를 追放하
며 生活改善을 爲하여 奮鬥努力하여야 할
時期가 찾아온것입니다. 坊坊谷谷에서 建
設의 노래소리가 우렁차게 들여오는 이
民族大繁榮의 時代에 우리 젊은 學徒들은
가장 보람있는 일을 하므로서 祖國再建에
크게 이바지하는 바가 있어야 하지 않겠음
니까?

여러분!

理性에 빛나는 學徒 여러분! 理論 없는
實踐은 참다운 成果를 期待할 수 없는 것
이니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理論의 武裝을
튼튼히 갖추어야 하겠으며 이 理論을 供
給하여 주는곳이 곧 圖書館이란것을 똑똑

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배움터인 學
校를 中心으로 해서 손에 손을 마주 잡고
鄉土學校圖書館을 建設하자는 것을 여러분
앞에 소리높이 呼訴하고자 하는바입니다.

地域社會의 產業開發에 必要한 文獻을
가추고 農漁村의 復興에 도움을 주는 圖
書를 備置하여 學生들이나 卒業生들뿐만
아니라 널리 地方 사람들에게 公開하므로
서 우리 고장의 文化向上에 财獻하고 삶을
을 바른方向, 潤澤한 것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非現實의 風習이나 不合理한 迷信을
깨트리고, “알아야 산다는 原理를 體
得시키자는 것입니다.

이웃나라 日本의 農夫들만 해도 農事改
良을 爲한 冊을 읽고 病虫害에 對한 研究
를 부지런히 하여 増產에 拍車를 加하는
한便 教養과 餘暇善用에 힘써 生活의 向
上과 共同福祉增進에 銳意努力하고 있다
고들 합니다.

農夫는 無識해도 善고 冊을 읽지 않아도
산다는 思考方式이 이 20世紀의 文明時代
에도 適用된다고 暴言하는 차가 있다면
그는 큰 認識錯誤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不遇한 環境에서 살아온 우리나라 農民
들에게 알길을 밝혀드리고 삶에 必要한

知識을 提供하여 드리지 못한다면 이는 곧 教育의 抹殺이요, 삶을 抛棄케 하는 結果가 되어버리고 말것입니다.

政府나 韓國圖書館協會가 우리나라의 圖書館施設이 貧弱함과 그 運營方法이 옳지못함을 느끼는 나머지 그立法化를 서두는 한便 圖書館設置를 積極獎勵하고 있음은 너무나도 當然한 일입니다.

저 빤마-크의 再建復興도 美國을 為始한 여러 先進國家들의 繁榮도 이 圖書館의 普及利用에 힘쓴 結果가 크나 큰 成果를 가져왔다는 事實을 알게될때 이 어찌 諸忽 할수 있는 問題이겠습니까?

또한 再建國民運動本部의 再建國民文庫普及會에서도 文庫設置運動을 展開하여 積極推進中이며 于先 今年度의 目標로 姉妹部落圖書室 500, 어깨등무學校圖書室 200, 一線高地圖書室 100個所를 設置하고 280餘種에 139,400餘卷의 冊子를 準備供給하리라는 것입니다.

實로 圖書館은 우리 고장이나 韓國에만 必要한 것이 아니라 全世界의 要請이요 은 人類의 오와시스인 것입니다.

特히 文化的 惠澤을 받을 수 있는 機會가 적은 우리 農村에 있어서는 必需不可缺의 時急한 施設이면서도 只今까지 放置되어왔다는 것은 그만치 사람다운 生活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입니다. 正義를 사랑하고 眞理를 崇高하는 學徒 여러분! 圖書의 選擇이나 圖書館의 管理運營에는 높은 知識와 卓越한 技術이 必要하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우리 學校가 우리 鄉土唯一의 文化的 殿堂이요 知性人の 모임터일진데 이러한 文化事業은 우리가 堪當하여야 할 崇高한 使命이요 重大한 責務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우리 學校에서도 只今까지 文盲退治를 한다고 애도 써왔으며 鄉土의 美化, 緑化를 為한 아침 清掃와 植樹도 하여왔읍니다만 結局이 모든것이 部落사람들의 理解와 協助가 없이는 所期의 目的을 達成할 수가 없다는것을 알았읍니다. 啓蒙과 自覺이 앞서야 한다는 것을 確實히 깨달았읍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親密感을 가지고 종종 學校를 찾아올 수 있는 契機를 만들어 드리고 壁에 물어 있는 標語한장이라도 읽어 認識을 새로이 하며 學校에 關한 이야기가 각家庭의 話題에 오르고 學校의 뜻하는바가 地方사람들에게 浸透되며 道當局의 方針이나 行政府의 施策들을 잘 理解하게 되는날 우리나라는 살기좋은 나라가 될것이고 富強을 約束할 수 있을것입니다. 배우는 것이 곧 삶의 程食이 되어 學校에서 본 新聞, 雜誌 記事が 우물가에서 속삭이는 아낙네들의 테마가 될때 興味를 가지고 한글工夫를 할려고 할것입니다. 學校圖書館에서 그분들의 疑問을 풀고 苦惱을 解決할 수 있는 열쇠를 發見하며 家畜을 기르고 痘을 治療하는 方法을 찾아볼수 있게될때 아는것이 힘이라는 것을 느낄것이요 圖書館의 價值를 認定하고 學校를 信賴하여 學校에서 하는일에 對하여 全幅의in 協助를 아끼지 않을것입니다. 學校의 採種圃나 苗圃에서 生產되는 種子와 苗木이 優秀함을 認識하게 되어서 서로 앞을 다뤄가며 그 優良品을 求하고 肥培管理하는 좋은 方法을 알려고 애쓸것입니다. 學校가 鄉土文化의 推進體임과 產業再建에 對한 人的, 物的, 技術的供給源임을 公認하게 된것임을 確信하는 바입니다.

우리들은 다같이 품돈을 모아 圖書를 사드릴 資金을 만들시다. 廢品回收나 우리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生產品을 팔아서 또한 自治會費를 節約해 가면서라도 必要한 冊을 準備합시다.

그리하여 이 보람있는 일이 하루빨리 成就되도록 온갖 誠意와 热意를 기우립시다.

이것만이 우리學校가 地域社會에 참다운 奉仕를 할수 있는 첫째의 方法이요 地方사람들과 더불어 삶의 教育을 하는 지

름길이 될것이며 山을 푸르게 하고 文盲者를 없애고 產業을 開發시키며 鄉土를美化하는 基本要素가 될것입니다.

알아야만 잘 살수 있는 것이오 圖書館은 一生동안 다녀야할 人生學校이니 學校 있는 곳에 반드시 圖書館이 設置되어 地域社會에 光明의 빛을 비쳐주시와 이 나라의 어진 百姓들이 알므로서 잘 살수 있게 하자는 저의 提案을 再次 強調하면서 이 자리를 끌려가겠습니다.

(全南 麓川南中學校 圖書室 提供)

Social Science Documentation Centre

A Union catalogue of western social science periodicals held by 31 major libraries in Korea. Social Science Documentation Centre, Yonsei Univ. Lib. Seoul Korea, 1962.

60p. 26cm (catalogue series No. 1)

延世大學校圖書館 社會科學 文獻 센터 刊。

歐美社會科學定期刊行物綜合目錄(國內31個圖書館所藏)○ 出刊